

원高에 엔低까지... 중고차 수출 18.4%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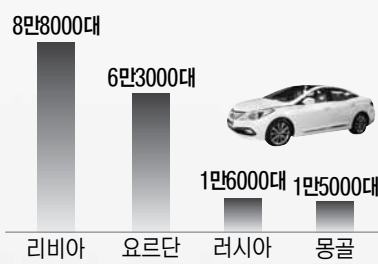
영세한 업체들 줄도산 우려 시장 다변화·정부지원 필요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가 환율 악재로 시름을 앓고 있다. 원화 강세에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중고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물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고차 수출 대수는 10만394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만7355대보다 18.4% 급감했다. 국산 중고차 수출은 2011년과 2012년에 전년 대비 각각 20.4%와 27.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지난해 17.7% 감소로 돌아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는 차량 가격이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여서 원화

■ 2013년 중고차 수출국



강세는 치명타”라고 말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여서 환율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중고차 수출은 ‘엔저’의 날개를 달고 급증하는 추세다. 일본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일본산 중고차 수출은 51만233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늘었다.

일본 중고차의 전년 대비 수출 물량 증

가율은 2011년 2.9%에서 2012년 17.1%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15.8%를 기록했다.

원성차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에서 일본차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중고차업체로서는 원화강세에 일본차 공세까지 이중고에 놓인 셈이다. 국내 중고차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 영세 중고차 수출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데다, 수출 선적업체와 물류업체 등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는 수백 곳이며, 비등록 업체까지 합치면 1000~2000곳에 이른다.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차 거래 시장은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로 나뉘는데, 수출용 차량은 일반적으로 국내 유통 차량보다 연식이나 가격, 차량 상태 등이 낫다.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은 리비아와

요르단, 러시아, 몽골 등 신흥국 수출이 절반 이상 차지해 해당 국가의 정세불안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 물량이 좌지우지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산 중고차가 가장 많이 수출된 곳은 리비아로 8만8000여대가 수출됐다. 이어 요르단(6만3000대), 러시아(1만6000대), 몽골(1만5000대) 순이었다.

이에 따라 중고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중고차 수출은 116만대로 신차의 30% 수준에 육박하지만, 국내 중고차 수출은 신차 수출의 10%에 불과하다”며 “중고차도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연비 검증 엄격해진다

2015년 10월 이후 출시 차량 주행저항시험

2017년부터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지금보다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신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검증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대립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하나의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부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하순에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이나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의 동시 충족 등 핵심사항의 시행은 1년 늦춰진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자동차기준을 개정하면 상대방에 통보해 협의해야 하고 제작사에는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도의 연비 검증 차량은 전년에 많이 팔린 자동차 가운데 선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2년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문제 삼아 13개 모델의 연비 과장을 판정했지만 정부가 주행저항값을 상시 검증하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공동고시안에서는 주행저항값에 대해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자동차 오래타기

7 휴가철 차량관리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다. 휴가철 차량관리요령을 알아본다.

장거리 운전 엔진과열 방지 냉각수 점검

장마 습기로 인한 배터리 성능 잘 살펴야

◇엔진과열 대비 및 에어컨 상태 확인
장거리 운전 전에 엔진오일과 냉각수를 점검해서 엔진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에어컨 상태 확인도 중요하다. 냉매와 쿨링팬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배터리 상태 점검
장마 습기로 인한 배터리 성능저하와 비오는 날 야간운행시 배터리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터리 터미널 조임 상태와 배터리 성능도 점검한 뒤 휴가를 떠나야 한다.

◇외관도 신경을 쓰자
휴가 전 세차와 더불어 고체왁스 등을 골고루 발라두면 도장 피막형성으로 흠이나 나뭇가지, 돌 등의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 박원성 과장>

중고차 시장으로 손 뻗는 獨 ‘빅3’

BMW, 무사고 중고차 판매 프로그램 운영
벤츠, 서울 스타클래스 전시장서 타사 차 매입
폭스바겐, 시범 딜러 선정... 다음달 사업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을 주름잡는 독일 완성차업체 ‘빅3’가 중고차 거래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BMW·메르세데스-벤츠·폭스바겐 등 독일 3사는 올해 상반기 5만2278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67대보다 33.1% 성장했다.

이는 수입차업체 전체의 평균 성장률 26.5%를 웃도는 실적이다.

신차가 팔리는 만큼 중고차 시장도 ‘파이’가 커지는 추세다. 1~6월 수입차 시장의 55.5%를 차지한 독일 3사는 향후 중고차 거

래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확대하는 한편 브랜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8~9월 중 중고차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시범 딜러업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고객의 기존 차량을 브랜드와 관계없이 매입해 대신 팔아주고, 자사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다스벨트오토’(Das Welt Auto) 인증을 붙여 품질을 보증하는 등의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도 최근 중고차 사업을 확대해 서울 오토갤러리(서울 서초구 양재동) ‘스타클래스’ 전시장에서 타사 중고차까지 매입

하기로 했다. 벤츠는 주행기간 4년 또는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무사고 차량으로 178개 정밀 점검을 통과한 자사 중고차를 스타클래스 브랜드로 직접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시세보다 5% 정도 비싸지만 남은 보증기간에 1년 또는 2만km를 추가해준다.

독일에서는 아예 신차 전시장 옆에 스타클래스 전시장을 두고 연간 12만여대의 인중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벤츠는 연내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스타클래스 전시장에서도 타사 중고차를 매입하고, 조만간 3번째 중고차 전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BMW는 2005년부터 72개 점검에서 합격

점을 받은 5년·10만km 이내 무사고 BMW·미니 중고차를 판매하는 BMW 프리미엄 셀렉션(BPS)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신차 구매와 동일하게 12개월 무상보증과 할부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2009년에는 업계 최초로 중고차 매매 웹사이트(www.BPS.co.kr)도 열었다.

BMW는 4월 오픈한 서울 장한평 전시장을 포함해 전국 9개 BPS 전시장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 10번째 전시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2500대를 판매했고, 올해는 45% 성장한 3600대 판매 목표를 세웠다.



가입문의 1855-0000

hello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지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지에서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66)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